한국과 프랑스의 초등 교과서 문법 교육 비교*

유미향**

<차 례>

Ⅰ. 머리말
Ⅱ. 초등 교과서의 문법 교육을 위한 전제
Ⅲ. 프랑스의 사례 : 초등 문법 교육과정과 교과서
Ⅳ. 초등 교과서의 문법 교육을 위한 시사점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본 연구는 초등 교과서의 문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초등 국어의 문법 교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국가는 프랑스이며, 최근 개정된 프랑스의 초등 교육과정(2007년 4월 4일 변경)과 4개 학년의 초등학교용 문법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의 현행 초등 국어의 문법 영역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초등 국어 교과서는 5차 교육과정 이후 언어 사용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서의 분권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후 이러한 체제가 계속 유지되었다. 기능 중심으로 영역이 나눠지면서 초등 국어의 하위 영역인 문법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화되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07 개정 교육

* 본 연구는 하이서울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miyawana@hanmail.net

과정의 교과서는 영역 간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문법 영역의 비중은 더욱 약화되었다. 실제 교과서 편제를 살펴보면 '읽기'와 '듣기 말하기 쓰기' 교과서로 나눠져 있다. 표면적으로는 문법 영역은 어느 교과서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최근 개정된 2011 교육과정은 학습양의 감축, 하위 영역 간의 통합 강조, 학년군제의 진술 방식 등을 택하였다. 그러므로 초등 국어 교과의 문법 영역은 그 지위가 더욱 모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1 초등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과서는 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초등 국어의 문법 영역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제 교과서 단원으로 어떻게 배열할 수 있는지를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초등 교과서의 문법 교육을 위한 전제

1. 2007 개정 초등 국어의 문법 구현 양상

초등 국어의 문법 영역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강인순・서현석(2009)은 1차부터 2007 개정까지의 초등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관규(2004)는 근대 문법 교과서부터 국정 문법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단원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송현정(2002)은 7차 교육과정의 문법(국어지식) 영역이 교과서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통합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외 신명선(2008), 송현정(2009) 등에서 초등 국어 교육 문법 영역의 내용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문법 영역이 초등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문법 관련 단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형편이다. 국어 교과의 하위 영역은 어디까지나 교과서 개발자의 몫이며, '듣기 말하기 쓰기'와 '읽기' 교과서 속에 문법 영역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도 교과서 개발자의 몫이다.[1)]

초등교육에서 문법 영역은 교육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만 교과서 편제나 단원 구성에서는 매우 모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초등 국어 교과서는 '읽기' 교과서와 '듣기 말하기 쓰기' 교과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2)]. 교과서 편제상으로 문법 영역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법 영역의 내용 요소들이 '읽기'나 '듣기 말하기 쓰기' 속에 통합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명확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으로 여섯 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2011 교육과정에서도 하위 영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편제상으로는 문법 영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통합'이라는 매우 모호한 방식으로 문법 영역은 학년에 따라, 혹은 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초등 3, 4, 5, 6학년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 해당 단원

학년	교과서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이 있는 단원	단원수
3-1	듣기말하기	8. 우리끼리 오순도순-문법(2)	1
	쓰기	8. 우리끼리 오순도순-문법(3)	1
	읽기	해당사항 없음	0
3-2	듣기말하기	4. 차근차근 하나씩-문법(2)	1
	쓰기	5. 주고받는 마음-문법(3)	1
	읽기	2. 이렇게 하면 돼요-문법(1), 읽기(1) 5. 주고받는 마음-문법(3)	2
4-1	듣기말하기쓰기	4. 이 말이 어울려요-쓰기(3), 문법(2) 5. 알아보고 떠나요-문법(1), 말하기(1) 6. 의견을 나누어요-쓰기(2), 문법(3)	3
	읽기	4. 이 말이 어울려요-문법(2), 읽기(2)	1

1) 신현재 외(2010)에서는 각 영역에 대한 교과서 단원 구성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문법 영역의 경우는 '통합이 가능한 영역과 합리적으로'라는 설명 이외는 구체적인 단원 구성 원리나 세부적인 설명이 없다.

2) 현행 초등의 국어 교과서는 1, 2, 3학년에서 '듣기말하기', '쓰기', '읽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초등 4학년부터 '듣기 말하기 쓰기'와 '읽기'로 나눠져 있다.

학년	교과서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이 있는 단원	단원수
4-2	듣기말하기쓰기	해당사항 없음	0
	읽기	해당사항 없음	0
5-1	듣기말하기쓰기	1. 문학의 즐거움-듣기(4), 문법(1)	1
	읽기	2. 정보의 탐색 - 읽기(1), 문법(3) 3. 생각과 판단 - 문법(2)	2
5-2	듣기말하기쓰기	5. 우리가 사는 세상-문법(4), 말하기(1)	1
	읽기	해당사항 없음	0
6-1	듣기말하기쓰기	해당사항 없음	0
	읽기	5. 사실과 관점 - 읽기(1), 문법(1) 6. 타당한 근거 - 읽기(2), 문법(2)	2
6-2	듣기말하기쓰기	5. 언어의 세계 -문법(3)	1
	읽기	5. 언어의 세계 -문법(4)	1

[표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문법 영역은 '듣기 말하기 쓰기' 교과서와 '읽기' 교과서 속에 불규칙적으로 등장한다. 대부분의 문법 영역은 읽기 제재의 성격에 따라 통합되거나 단독 성취 기준으로 단원을 구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6-2학기 5단원은 제재가 한글 창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 단원의 학습 활동은 주로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법 영역은 타 하위 영역들과의 통합된 형태로만 단원을 구성하는데,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의 특성상 하위 영역들과의 통합되지 않는 경우 교과서 단원으로 포함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즉 통합된 형태로 적용된 몇몇의 문법 성취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교과서 속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문법 영역이 타 하위 영역들과의 통합이 이루어진 단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아래 [표 2]는 6-1학기 읽기 단원의 예이다. 이 단원은 6학년 문법 (2)와 읽기 (2)의 성취기준이 통합되어 단원이 구성되었다.

[표 2]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6-1학기 6단원

대단원명	6. 타당한 근거(언어 사용 목적 : 설득)
교육과정 성취기준	문법(2) 문장의 연결 관계를 이해한다. 읽기(2) 논설문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
단원학습목표	이어 주는 말의 쓰임새를 생각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글/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분명한 주장과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 접속 부사 등으로 연결된 문장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
이해/적용	1. 글을 읽고 이어주는 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3.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4.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연결 관계를 알아봅시다. 5-6. 비유적 표현의 효과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내용	한치못 / 주어라, 또 주어라 어린이의 보행 안전 / 꼭 막힌 생각, 뻥 뚫린 생각

[표 2]의 단원 학습 목표는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읽기 영역과 문법 영역을 통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시 목표의 진술이나 구체적인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학습활동이 영역에 따라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해 활동에 해당하는 '1. 글을 읽고 이어주는 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이해 활동과 적용 활동은 '읽기(2)'의 성취기준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문법(2)의 문장의 연결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 요소들[3]이 실현되는 것은 6차시 수업 중에서 1차시에 불과하고 나머지 5차시는 모두 읽기 영역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통합 단원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한 채 새로운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구성한다면 문법 영역은 이전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서 편제는 기존의 언어기능을 중심으로 분리된 체제가 아니라면 각 하위 영역의 성격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

3) 교육과정에 제시된 문장의 연결 관계와 관련된 내용 요소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방법 알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의 종류 알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알맞게 사용하기 등이 있다.

2. ‘국어’와 ‘국어활동’ 교과서

새로운 교과서 편제는 이론적 배경보다는 학습양의 축소라는 현실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습양의 축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단원 구성을 위해 하위 영역 간의 통합이라는 방법을 강행하게 된다. 내용 요소의 선택과 제외는 온전히 교과서 개발자의 몫이 된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온전히 교과서 개발자의 몫으로 남겨야만 할 문제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박수자, 2011). 국어 교과서가 현행과 같은 언어 기능의 분권 체제가 아닌 ‘국어’ 교과서와 ‘국어 활동’ 교과서로 변경되었다. 초등 국어 교과서와 유사한 예로는 2007 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가 있으며, 이는 읽기와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어’ 교과서와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국어’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교육과정의 영역을 분리하여 교과서로 안배라는 차원에서는 초등 국어와는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교과서 편제에 대해 타 교과의 예를 살펴보면, 주로 주교과서와 보조 교과서 체제를 갖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혜승(2005), 김혜숙(2005), 민현식(2007), 정혜승(2011)에서는 외국의 국어 교과서 체제와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한국의 초등에서도 유사한 예가 있다. 수학 교과의 경우 ‘수학’과 ‘수학익힘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 사회 교과서는 ‘사회’와 ‘사회와 탐구’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 교과서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20% 학습내용 감축으로 ‘사회과 탐구’ 교과서 자체가 없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초등 국어 교과서 편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국어활동’ 교과서의 성격이 사회 교과의 예처럼 보조 교과서, 워크북 형식으로 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박수자, 2011). 즉 ‘국어활동’ 교과서는 실제적인 국어 교과의 하위 영역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초등 국어는 문법 영역의 경우 실제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못하고 ‘읽기 교과서’와 ‘듣기 말하기 쓰기 교과서’ 속에

체계성 없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초등의 문법 교육은 국어생활을 위한 기초적 언어규범을 가르치는 것으로 필수 영역이다. 그러므로 언어기능 중심의 분권체제가 아닌 영역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교과서 체제를 구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가 부족하다면 외국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Ⅲ. 프랑스의 사례 : 초등 문법 교육과정과 교과서

1. 프랑스의 초등 교육과정과 문법 교육[4)]

프랑스의 학제를 살펴보면, 초등은 5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CE1(기초학습주기의 초급 1학년)부터 문법 교육을 실시한다. 프랑스는 2007년 초등 교육과정(programme)을 개정하였으며, 실제 초등교육에서는 2008년부터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9, 2010년 단계적으로 개정된 CE1(초급1학년), CE2(초급2학년), CM1(중급 1학년), CM2(중급 2학년)의 문법 교육과정과 Belin출판사의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5)]

프랑스의 자국어는 하위 영역을 크게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영역으로 나눈다. 2008년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를 영역으로 구별

4)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은 언어학습(etude de la langue)은 한국의 문법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언어학습 대신 '문법 교육'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프랑스의 언어학습은 하위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휘, 철자, 문법, 동사변화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문법은 구, 문장 차원의 문법단위를 의미한다.

5) 여기서 제시한 프랑스의 초등학년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한국의 초등 2, 3, 4, 5학년에 해당한다. 또 프랑스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우 많은 종류의 교과서 출판사들이 있다. 대표적인 출판사로는 Hachette, Hatier, Belin 등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대표적인 출판사인 Belin의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였으나 개정 후 듣기는 말하기 영역으로 흡수되었다. 또한 읽기 영역은 실제 한국의 문학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기의 내용 요소는 문학 작품 목록 및 예술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년별 필수 문학 작품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읽기' 교과서는 문학 작품 읽기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이 통합된 형태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 편제는 '문학(말하기, 읽기, 쓰기)'과 '언어학습(문법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고, '문학' 교과서는 각 단원 속에 말하기, 읽기, 쓰기와 '문법(언어학습)' 영역이 통합되어 있다. 즉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단원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법(언어학습)' 영역은 독립된 교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 요소들을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초등 교육에서 문법 영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초등의 수업 시수(2007년 기준, 현재 적용되고 있음)를 참고하면 이해할 수 있다.

[표 3] 기초학습주기와 심화학습주기의 수업 시수

<table>
<tr><th colspan="3">기초학습주기(CP, CE1)</th><th colspan="5">심화학습주기(CE2, CM1, CM2)</th></tr>
<tr><th>교과 영역</th><th>최소 시간</th><th>최대 시간</th><th>교과 영역</th><th>교과목</th><th>최소시간</th><th>최대시간</th><th>시수</th></tr>
<tr><td>언어와 프랑스어 습득</td><td>9시간</td><td>10시간</td><td rowspan="5">프랑스어와 인문교육</td><td>문학(말하기/읽기/쓰기)</td><td>3시간 30분</td><td></td><td rowspan="5">12 시 간</td></tr>
<tr><td>더불어 살기</td><td colspan="2">30분 (주간 토론)</td><td>언어 학습 (문법)</td><td>2시간 30분</td><td></td></tr>
<tr><td rowspan="2">수학</td><td rowspan="2">5시간</td><td rowspan="2">6시간</td><td>외국어</td><td colspan="2">1시간 30분</td></tr>
<tr><td>역사와 지리</td><td>3시간</td><td>3시간 30분</td></tr>
<tr><td>주변세계의 발견</td><td>3시간</td><td>3시간 30분</td><td>공동생활(토론)</td><td colspan="2">30분(주간 토론)</td></tr>
<tr><td>외국어(CE1)</td><td colspan="2">1시간 30분</td><td rowspan="2">과학 교육</td><td>수학</td><td>5시간</td><td>5시간 30분</td><td rowspan="2">8시간</td></tr>
<tr><td>예술교육</td><td colspan="2">3시간</td><td>실험과학 및 기술</td><td>2시간 30분</td><td>3시간</td></tr>
</table>

기초학습주기(CP, CE1)			심화학습주기(CE2, CM1, CM2)				
교과 영역	최소 시간	최대 시간	교과 영역	교과목	최소시간	최대시간	시수
체육	3시간		예술 교육	음악, 시각예술	3시간		3시간
			체육		3시간		3시간

자국어(프랑스어) 수업에서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과 분리하여 문법 교육이 실시하는 것은 기초학습주기의 CE1(초급1학년)부터이다. 한국의 학습자 연령과 비교해 본다면, 한국의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실시한다. 실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법 영역의 하위 요소인 문법, 어휘, 철자법, 동사 변화 등의 주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요소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수업 시수에서는 이러한 문법 교육 영역이 어떻게 실현되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심화학습주기의 수업 시수를 살펴보면 2시간 30분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즉 문학 교과서와 문법(언어학습) 교과서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문법 영역을 독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 요소들을 학습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구조화된 지식을 습득하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지식을 규칙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익혀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상황에서 개념과 규칙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습득과 기억의 국면을 요구한다.

문법 교육(언어학습)은 개념과 읽기와 쓰기 학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필요하한 정확한 실행을 요구한다. 다양한 언어학적 요소들(텍스트, 문장, 낱말, 형태소…)의 조작, 이동, 대치, 확장, 축소 등의 활동은 비교하고 분류하게 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고 규칙성을 파악하고, 규칙을 확고히 한다. 예를 들어 명사의 다양한 확장(품질형용사, 관계사, 명사의 보어) 등과 같은 것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읽기와 쓰기 상황에서 민첩성을 발달시킨다.

외국어 학습은 프랑스어에 대한 분석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6)]

프랑스의 초등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법 교육의 방향과 목표이다. 한국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구성 방식을 갖고 있어, 교과의 목표, 성격, 성취기준 및 내용 요소, 교수-학습 방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교육과정은 해당 교과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고 간략하게 영역의 목표와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문법 영역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 요소를 제공하고 있어 교사에게 명확하게 학습할 내용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 요소들은 문장(구), 어휘, 철자법, 문법, 동사변화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는 심화학습주기의 문법교육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프랑스의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을 '지식'과 '능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지식

- 동사형태의 변화규칙, 가장 흔히 쓰이는 동사 활동(직설법 현재, 복합과거, 반과거, 미래)을 안다.
- 문장의 위계적 구조(명사주어군, 동사군), 명사군 내에서의 일치를 안다.
- 인칭대명사 주어
- 동사군
- 문장을 구조화는 주된 기능들(주어, 직접목적보어, 간접목적보어, 시간과 장소의 상황보어)
-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긍정문, 부정문

능력

- 텍스트 내에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법과 시제에 따라 활용된 동사와 부정법의 동사를 확인할 수 있다.
  명사의 확인
  문장 내에서 명사군과 동사군 사이의 관계 파악

6) 프랑스의 초등 교육과정 일부이며, 초등의 심화학습주기 문법교육(언어학습)의 방향과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임. 원문은 B.O. N°5(Programmes d'enseigenement de l'école primaire)이며, 출처는 프랑스 교육부 누리집.

－주어와 동사의 일치를 표시할 수 있다(규칙적인 상황)
－명사의 한정사들이 주는 의미론적 지시를 활용할 수 있다. 명사의 다양한 한정사들을 사용할 수 있다.(관사, 소유형용사)
－명사군 내에서 일치를 파악하고 실현할 수 있다.
－문장을 확장 발전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명사군의 확장과 상황보어의 첨가)
－말과 글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동사들의 시제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확하게 구성된 의문문과 부정문을 쓸 수 있다.
－문법적으로 허용되는 문장으로 열줄 가량의 텍스트를 쓸 수 있다.
－읽기와 쓰기 활동에서 문장의 요소들을 이동, 대치, 확장, 감축 등을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명사의 다양한 확장을 실현한다(품질형용사, 관계절, 명사의 보어). 또는 문장의 보어를 덧붙이거나 들어냄으로써도 실현한다.
－단어의 분류와 기능 간의 차이점을 만들 수 있다.

위의 예는 CM1(중급1학년)와 CM2(중급2학년)의 문법 영역의 내용 요소들이다.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문장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요소를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의 유형, 주어와 서술어, 그 외의 필수성분 등을 주된 학습 내용 요소로 제시하였으며, '능력'에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세하고 있다. 초등 수준에 적합한 문법 지식들을 기초로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품사 단위의 학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품사나 문장 성분에 대한 문법 지식 용어를 올바르게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국어에 대한 학습은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교육과정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7]

기초학습주기의 CE1(초급 1학년)부터 실시하는 문법교육은(언어학습)은 심화학습주기인 CE2(초급2학년), CM1(중급1학년), CM2(중급2학년)로 심화되어

7) 이는 한국의 문법 교육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초등 국어 교육에서는 문법 용어를 직접 사용하거나 문법 지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국어 교육에서 문법지식과 관련된 직접적인 용어를 접하게 되는 것은 중등 교육에서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영어 학습을 통해 문법 용어를 먼저 배우게 된다.

나타난다. 대체로 기초 규범과 많은 예외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교사는 이러한 문법지식을 학습자들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 프랑스의 초등 문법 교과서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은 문법(언어학습), 말하기, 읽기, 쓰기의 하위 영역을 갖고 있다. 문법 영역은 다른 하위 영역과 달리 비교적 구체적인 성취기준과 활동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즉 문법 영역은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programme)과 세부지침이 있고, 각 출판사에서는 이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교과서를 집필한다. 교사 역시 세부지침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야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비록 프랑스 교육부가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초등의 국어(프랑스어), 수학의 경우 검인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어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초등 문법 교과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읽기 영역은 필수 작품 목록과 읽기 방법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CE1(초급1학년)의 문법 교과서 목차

단원	어휘	철자법	문법	동사변화	쓰기연습
1. 학교	복습어휘	ga,go,gu	문장(구)	사전순서알기	짧은글
2. 하루일과	시제표현	eu, oeu	사람,동물명사	사전순서알기	〃
3. 가족	가족	an,en,am,em	명사변화	사전단어찾기	〃
4. 일주일	일주일	ai,ei	관사	사전단어정보	〃
5. 달(月)	달력보기	on,om,onne,	1군,2군동사	사전찾기연습	〃
6. 직업	직업종류	o,au,eau	관사+모음	과거현재미래	〃
7. 음식	음식종류,맛	s, ss	문장 변화	dessiner변화	〃
8. 사계절	계절표현	ge,gi,gea,geo	형용사	동사현재형	〃
9. 놀이	놀이종류	in,im,yn,ym	남성형,여성형	동사현재형	〃
10. 운반	이동수단	é,è,ê	단수,복수	동사현재형	〃

단원	어휘	철자법	문법	동사변화	쓰기연습
11. 장소	도시이름	c,ç	대명사	동사현재형	〃
12. 집	집과 아파트	e〔è〕	단수,복수	arriver변화	〃
13. 시간	시간읽고쓰기	oir, oire	형용사성일치	avoir 현재	〃
14. 보고듣기	감각표현	ain,aim,ein,in	형용사수일치	avoir 현재	〃
15. 신체	신체부분이름	〔ou〕	한정사(1)	être 현재	〃
16. 건강	건강표현	〔j〕	한정사(2)	être 현재	〃
17. 크기	측정표현	il,ill	명사구(1)	3인칭단복수형	〃
18. 특성	장점단점	ien,ienne	주어	manger미래형	〃
19. 식물	식물종류	ail,eil,aille,eille	주어동사일치	manger미래형	〃
20. 동물	동물종류	oin	대명사일치	avoir 미래형	〃
21. 지구알기	지구환경	euil,euill	부사	avoir 미래형	〃
22. 동물생활	동물의 환경	c,qu,k	où	être 미래형	〃
23. 식물성장	식물의 환경	tion	pourquoi	être 미래형	〃
24. 자연조화	먹이사슬	er,ez,ed	quand	복합과거형	〃
25. 공기	공기관련표현	y〔i〕,〔i-i〕	comment	복합과거형	〃
26. 물	물관련표현	ph	의문문	복합과거형	〃
27. 온도(冷溫)	온도측정표현	묵음표현	부정문	복합과거형	〃
28. (문명)발전	전기전자표현	ap-로시작	명사구(2)	écouter반과거	〃
29. 불	불관련표현	ac-로시작	구 변화	aller, dire	〃
30. 동물분류	동물분류표현	af,ef,of	et 사용	venir, faire	〃

초급 1학년은 학습자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하여 주제를 중심으로 단원을 설계하고 문법교육에 해당하는 문법, 어휘, 철자, 동사변화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지 않았다. 매 단원의 주제를 정하고 해당하는 문법, 어휘, 철자, 동사변화를 1쪽 정도의 분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단원의 전체 분량은 5-6쪽 정도이다. 각 단원의 마지막은 쓰기를 위한 연습이 제공되는데, 이때 반드시 반쪽 분량의 제재가 제시된다. 제재를 통한 문법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CE1(초급 1학년)은 출판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30-35개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단원의 구성은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길이가 대체로 짧고, 문법 지식을 제시하고 반복하는 연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표 5] CM1(중급1학년), CM2(중급2학년)의 문법 교과서 목차

세부 영역	문법/어휘/철자법/동사변화/연습문제(짧은글)
문장(구)	1. 문장이란 무엇인가?
	2. 문장의 다양한 변화
	3. 단순구문, 복합구문
	4. 문장 유형 : 설명, 의문, 감탄, 명령
	5. 문장 형태 : 부정, 긍정
	6. 구두법
문법 용어 분류	7. 동사와 동사분류
	8. 명사와 명사분류
	9. 명사와 형용사의 성수(性數)일치
	10. 품질형용사
	11. 명사의 한정사
	12. 대명사
	13. 관계대명사
	14. 불변화어(전치사와 부사)
문장(구)의 기능	15. 주어군
	16. 주어와 동사의 일치
	17. 직접 목적 보어
	18. 간접 목적 보어
	19. 주어의 속사
	20. 상황보어
	21. 명사그룹에서의 기능
동사와 동사변화	22. 동사와 동사변화
	23. 부정법/현재분사/과거분서
	24. 과거 분사의 일치
	25. 시제 : 현재/복합과거
	26. 시제 : 미래
동사와 동사변화	27. 시제 : 반과거와 대과거
	28. 시제 : 단순과거
	29. 시제 : 반과거와 단순 과거의 사용
	30. 조건법
	31. 명령법

[표 5]의 CM1(중급1학년)과 CM2(중급2학년)에서 사용하는 문법 교과서의 목차이다. 기초학습주기와는 달리 심화학습주기에서는 문법의 심화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기본적인 품사나 문법 용어를 직접 제시하고 학생들이 반복할 수 있는 연습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단원은 5-6쪽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으며, 문장, 문법용어, 문장의 기능, 문장 성분, 동사변화로 나눌 수 있다. 각 분류의 세부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의 지식과 능력의 내용요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 문법 교과서는 문법, 어휘, 철자법, 동사변화를 이전 단계의 문법 교과서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문법 교육의 하위 영역이 세분화되어 제공되며, 각 단원의 마지막은 반드시 짧은 글과 연습활동이 있다.

프랑스의 문법 교육은 말하기, 읽기, 쓰기를 정교하고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면서, 문법 그 자체로 학습할 가지를 충분히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문법 교육의 목표는 언어(프랑스어) 그 자체에 대한 관심과 논리적인 사고 구조의 연습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법 영역을 표5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세 개 학년의 문법 교과서를 살펴보면 목차가 매우 유사하여 명사를 CE2, CM1, CM2의 순서로 심화하여 배울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문법 영역을 국어 교과서 편제에서 단독 단원으로 구성하고, 자국어의 문법 교육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초등 국어 교육과정에서 밝힌 '문법의 자동화'와 연관되어 있다. 문법의 자동화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동화는 자국어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규칙과 관습을 철저히 학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 이것이 프랑스의 자국어 교과가 강조하는 문법(언어학습)의 방향이다. 자유로운 말하기, 상상적 글쓰기를 주된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일반적인 규칙이나 관습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초등 문법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문법 교육이 구체적인 내용 요소들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초등 문법 교육은 '문법(언어학습)' 교과서를 통하여 독립된 학습을 보장받고 있으며, '문학' 교과서에서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와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문법 교육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단독단원으로 분리하여 학습하기도 하고, 총체적인 언어학습을 위해 통합된 단원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것은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여주는 예가 된다.

3. 프랑스의 초등 문법 교과서 단원

실제 초등 문법 교과서의 한 단원을 통해 구체적인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자. 'CM1, CM2' 단계의 문법 교과서의 12단원으로 대명사를 학습하는 단원이 있다. 이 단원은 6쪽 분량(교과서 74-79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 목표와 간략한 학습 내용을 1쪽 분량으로, 대명사 관련 학습 활동이 1쪽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문법, 어휘, 철자법은 구별 없이 1번부터 27번까지 학습 활동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대명사로 바꾸는 연습, 5번부터 13번까지는 문법 연습, 14번부터 16번까지는 어휘 연습, 17번부터 25번까지는 철자법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는 26, 27번은 긴 텍스트가 주어진 다음, 단원에서 배운 학습 내용, 문법, 어휘, 철자법을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2. 대명사(74쪽)

짧은 글(12줄 정도의 산문으로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음)

<학습목표>

* 이야기에서 인칭 대명사 학습하기

윗글의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칭 대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지막 단락에서 명사구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대화에서 인칭 대명사 학습하기

대화에서 1인칭 대명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2인칭 대명사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앞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하기>

* 대명사는 명사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명사군을 반복할 때 종종 사용합니다.
* 대화에서 특정 대명사는 다른 명사군을 반복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상대 또는 다른 상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대명사는 명사군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75쪽)

1. 제시된 여러 개의 문장에서 굵게 표시된 명사군을 지시대명사로 바꿔 보세요.
2. 제시된 여러 개의 문장에서 굵게 표시된 부분을 인칭 대명사로 바꿔 보세요.
3. 아래의 텍스트 속의 빈 칸에 생략된 대명사들을 찾아서 다시 써 보세요.
4. 대명사를 반복하여 사용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생략된 명사군을 다시 살펴 표시해 보세요.

<연습하기> (76쪽)

5. 모든 반복된 지시대명사를 찾아보고, 이것들을 잘 살려서 텍스트 속에 다시 써 보세요.. 주의) 특정 명사군들을 잘 살펴보고, 대명사로 모두 바꿔 보세요. (제시된 텍스트는 문학 작품의 일부분임. 2개의 단락)
6. 텍스트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대명사를 문장에 맞게 적절한 골라서 써 보세요.
7. 다음 제시된 3인칭 대명사를 각 기능에 맞게 문장 속에 넣어 보세요.
8. 제시된 문장 속에서 명사군을 해당 인칭 대명사로 바꾸어 써 보세요.
9. 제시된 텍스트에서 관사는 푸른색으로 대명사는 붉은 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77쪽>
10. 아래의 예시문과 같이 주어진 문장들 속에 굵게 표시된 부분을 지시대명사로 바꾸어 보세요.
11. 아래의 예시문과 같이 주어진 문장들 속에 굵게 표시된 대명사를 명사군으로 바꾸어 보세요.
12. 아래의 예시문과 같이 명사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명사로 바꾸어 보세요.
13. 아래의 예시문과 같이 명사군을 활용하여 의문대명사를 만들어 보세요.

<어휘>

14. 연습문제 5번의 텍스트를 다시 읽어보세요.

a. 제시된 다섯 개의 단어 중에서 나머지 네 개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를 골라보세요.

b. 명사 '배'와 관련된 다양한 명사들을 5가지 이상 써 보세요.

15. 다음 제시된 단어들의 사전 속 설명을 보고 해당 단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 보세요..

16. 굵게 표시된 단어들을 사전을 찾아보고 해당 명사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 보세요.

<철자법> (78쪽)

17. 괄호 속의 동사를 현재형으로 바꿔 보세요.

18. 괄호 속의 동사를 반과거형으로 바꿔 보세요.

19. 괄호 속의 동사를 미래형으로 바꿔 보세요..

20. 제시된 단락을 주어진 대명사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 보세요.

21. 빈칸에 적절한 대명사를 넣어 문장들을 완성해 보세요.

22. 주어진 문장들 속에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를 적절하게 넣어 보세요.

23. ce, cela, ceux 등을 적절하게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24. 주어진 문장에서 굵게 표시된 부분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의문문을 만들어 보세요.

(79쪽)

25. 제시된 단어 중에서 상황에 적절하게 선택하여 텍스트를 완성해 보세요.

<받아쓰기>

알퐁스 도데의 '풍차 방앗간에서 온 편지'Les Lettres de mon moulin의 일부분이 제시되어 있음.

<학습한 내용 요약하기>

26.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분류표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써 보세요.

27. 주어진 텍스트에서 잘못 사용한 대명사를 찾아서 고쳐 보세요.

대단원 구성 체제는 매우 간략하며,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이 문장과 단락을 통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연습 문제는 문장 단위에서 점진적으로 문장이 길어지고, 뒷부분은 완성도가 높은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초등 문법 교과서는 문법의 세부 영역을 고르게 다루고 있으며, 문장 연습이나 텍스트를 완성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단원의 분량은 6쪽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대단원 학습하

는데 2차시 정도 소요된다.

Ⅳ. 초등 교과서의 문법 교육을 위한 시사점

프랑스의 자국어 교과서는 '문학(말하기, 읽기, 쓰기)'과 '문법(언어학습)'으로 나누어진 2권 체제를 갖고 있다. '문법' 교과서는 프랑스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법의 세부 영역인 어휘, 철자법, 문법, 동사변화를 철저히 다루고 있다. 문법 단원은 대체로 5-6쪽 정도의 분량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31-35개 정도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독 단원에서 학습한 문법 지식은 '문학' 교과서의 각각의 단원 속에 제재를 중심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과 통합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한국 초등 교과서의 문법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국어 교과서 편제를 재고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국어 교과서는 기능 중심의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1 교육과정의 국어교과는 '국어'와 '국어생활'이라는 교과서 편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는 국어 교과의 내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교과서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내용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본교재와 보조 교재식의 구성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가 필요하다. 교과서 편제는 국어 교과의 하위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의 통합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초등 국어 교과서 편제인 '문학(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구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 국어의 문법 영역을 구현하는 단원을 재고해야 한다. 현행 국어 교과서의 단원은 하위 영역 간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들이 교과서 속에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다. 특히 문법 영역은 통합의 정도가 매우 약하므로, 성취기준이 충실히 반영된 예가 매우 드물다. 또한 '읽기' 교과서나 '듣기 말하기 쓰기' 교과서 속에 문법 영역은 매우 모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 편제에서 문법 영역을

단독으로 다루지 못한다면 문법 영역과 하위 영역 간의 통합이 드러날 수 있는 단원 구성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사례처럼 문법 단원에서 내용 요소를 학습하고 실제 문학 작품 속에서 문장을 활용하여 예시를 찾거나 학습한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작문을 하는 활동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셋째, 문법 영역의 세부 내용 요소를 재고해야 한다. 현재의 초등의 문법 교육은 중등 교육과정과 같은 세부 영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체제나 단원 구성 방식과 매우 다르다. 교과서 편제상으로 문법 영역은 어느 곳에서 속하지 못하며, 또 각각의 세부 영역은 학년별, 학기별로 반영하고 있는 성취기준이 불규칙적이다. 음운 관련 성취기준만을 다루는 학년이 있고, 통사 관련 성취기준만 다루는 학년도 있다. 심지어 문법 성취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기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음운, 형태, 통사, 어휘, 담화 등 언어 단위 중심의 세부 영역 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초등 문법 교육에 필요한 실제적인 학습을 위해 세부 내용 요소를 재편하고, 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2011 초등 국어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국어'와 '국어활동'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새롭게 편제된 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각 교과서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하여 새롭게 단원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 교과의 하위 영역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 영역 간의 통합을 바탕으로 어떻게 단원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기능 중심의 분권화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국어의 문법 교육을 중심으로 현행 초등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토대로 초등 국어

의 문법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2011 교육과정이 반영된 국어 교과서는 새로운 책제로 인하여 내적 변화의 시도, 문법 영역이 적절히 통합될 수 있는 단원 구성, 문법 교육의 세부 영역에 대한 재고 등을 제기하였다. 초등 국어의 문법 교육을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초등의 문법 교육이 '통합'이라는 모호한 단원 구성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변화된 교과서 편제가 외형적 변화가 아닌 국어 교과의 내적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며 초등의 문법 교육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 본 논문은 2012. 6. 30. 투고되었으며, 2012. 7. 9. 심사가 시작되어 2012. 7.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별책5)』.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제 2011-361호(별책 5)』.
강인순・서현석(2009), 초등 문법 교육의 내용 연구, 『청람어문교육』, vol 40, 4~77, 청람어문교육학회.
교육인적자원부・경상남도교육청(2008), 『세계의 교육과정－프랑스편』, 교육과정자료-417.
김재춘 외(2005),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의 절차와 원리 구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5-5,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김혜숙(2005), "프랑스, 독일,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한국의 자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한국언어문화학』 제2권 제2호, 39~88,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민현식(2007), "문법 교육의 반성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제19집, 287~35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박수자(2011),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서 개발 방향",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 대한 점검과 실행 방안 학술대회』 논문집.
송현정(2002), "국어지식 영역의 교과서 제시 방식에 관한 분석 :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과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제109호, 111~146, 한국어교육학회.
송현정(2009), "문법 교육을 위한 내용교수법적 접근",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1집, 59~8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신명선(2008),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31집, 357~392, 국어교육학회.
신헌재 외(2010),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 과정과 전망』, 미래앤.
이관규(2002), "국어 지식 영역의 연구 현황과 과제", 『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79~119, 한국문화사.
이관규(2004), 문법 교과서의 변천, 『한국어학』, Vol. 22, 299~334.
이창근(2007), "초등학교 문법 교육의 접근 원리", 『국어교육연구』, Vol. 41, 국어교육연구회.
정혜승(2005), "미국의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 『독서연구』, vol. 14, 335~371.
정혜승(2011), "외국의 국어 교과서 체제 분석－미국과 프랑스 초등학교 교과서를 중

심으로-", 『청람어문교육』, vol 44. 85~120.
교육과학기술부(2010)『듣기말하기』3-1, 3-2.
교육과학기술부(2010)『쓰기』3-1, 3-2.
교육과학기술부(2010)『듣기말하기쓰기』4-1, 4-2, 5-1, 5-2, 6-1, 6-2.
교육과학기술부(2010)『읽기』3-1, 3-2, 4-1, 4-2, 5-1, 5-2, 6-1, 6-2.
Sommer, M. & Flaven, J. (2009), Français-Étude de la langue CE1, Belin.
Mauffrey, A. & Cohen, I. (2010), Français-Étude de la langue CE2, Belin.
Mauffrey, A. & Cohen, I. (2010), Français-Étude de la langue CM1 et CM2, Belin.
프랑스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B.O. N° 5. (Prgramme D'enseigenement de l'école primaire)
프랑스 교육부 누리집
Belin 출판사 누리집

<초록>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 교과서 문법 교육 비교

유미향

본 연구는 한국의 초등 국어의 문법 영역을 구현하기 위해 프랑스의 블랭 출판사의 초등 문법 교과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행 한국의 초등 국어 교과서 속에 문법 교육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프랑스의 초등 문법 교과서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개발하는 초등 국어의 문법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새로운 국어 교과서 편제를 재고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국어 교과서는 기능 중심의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1 교육과정의 국어교과는 '국어'와 '국어생활'이라는 교과서 편제를 갖게 된다. 이전과는 차별된 형태를 위하여 본교재와 보조교재식의 구성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초등 국어 교과서 편제인 '문학(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구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 국어의 문법 영역을 구현하는 단원을 재고해야 한다. 현행 초등의 국어 교과서 단원은 영역 간의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문법 영역은 통합의 정도가 매우 약하며,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이 제대로 반영된 예가 드물다. 그러므로 문법 영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내용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문법 단원이 필요하다.

셋째, 문법 영역의 세부 내용 요소를 재고해야 한다. 현재의 초등의 문법 교육은 중등 교육과정과 같은 세부 영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체제나 단원 구성 방식과 매우 다르다. 교과서 편제상으로 문법 영역은 어느 곳에서 속하지 못하며, 또 각각의 세부 영역은 학년별, 학기별로 반영하고 있는 성취기준이 불규칙적이다. 그러므로 초등 문법 교육에 필요한 실제적인 학습을 위해 세부 내용 요소를 재편하야 할 것이다.

2011 교육과정이 반영된 국어 교과서는 새로운 책제로 인하여 내적 변화의 시도, 문법 교육의 세부 영역 확보, 문법 영역이 반영된 교과서 단원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초등 국어의 문법 교육을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변화될 교과서 편제가 외형적 변화가 아닌 국어 교과의 내적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다.

【핵심어】 국어교육, 문법 교육, 국어 교과서, 프랑스 자국어 교과서, 문법 교과서, 문법 단원, 통합 단원

<Abstract>

Study on Grammar Education of Elementary Textbook between Korea and France

Yu, Mi-hyang

This article analyzed the French textbook and curriculum with the purpose of further diversifying and developing the Korean grammar curriculum and elementary textbooks. It focuses on the view of grammar of textbook systems and unit composing systems.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article provides Korean education with some important implications:

(1) To reconsider the new construction of textbook. It has two kinds of external structure in new Korean textbook : the one is Korean, the other is living Korean. However, it has no information how to organize and where to arrange grammar education.

(2) To reconstruct the grammar unit for new textbook. Actually the grammar education is of little importance in elementary textbook. Therefore it needs to study deep on how to make the integration unit.

(3) To reconsider the contents of grammar curriculum. The grammar education in french curriculum has four sub-domains : grammar, orthography, vocabulary, conjugation. Thus, it has been constructed a grammar unit that integrated with four sub-domains.

Now, the new elementary textbook is being developed in Korea. It needs more to focus on the grammar education of the elementary textbook while the former textbook didn't do. There has studied deep on the grammar education how to make the contents of textbook and where

to make the grammar unit.

【Key words】 Korean Education, Korean Textbook, Grammar education, Grammar Curriculum, Elementary textbook, French textbook, a grammar unit, an integration unit